당신이 구세주라는 증거를 다 보여준 조희성님

여러분들은 다 구세주의 분신이 이끌어서 온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슬이 보이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 찍혀 나온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게 격암유록에 쓰여 있어요. 중생들의 눈에는 그 감로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쓰여 있어요. 카메라 렌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사진에는 찍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모방력으로 하나님을 사로잡았다

이슬성신이 허옇게만 찍혀 나오는 게 이슬성신이야? 갖가지 색깔로 나오죠? 마귀가 모방력이 있어요. 마귀가 모방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로잡은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예요. 이 세 분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인간 세상에 아담과 해와가 왜 왔느냐 하면, 이 인간 세상을 에덴동산 낙원이 되는 천국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아챈 마귀가 모방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졌어, 안 졌어? 어떻게 점령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걸 아는 자라야 진짜 구세주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가짜야.

해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었다고 하는 말은 실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영이고, 생명과일도 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성경 말씀이 전부 영적 말이라고 쓰여 있어, 육적 말이라고 쓰여 있어? 영적 말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생명과일도 영이고, 선악과도 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일은 무슨 영이고, 선악과는 무슨 영이라는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죠? 그거 설명 못하면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생명과일이 영생의 하나님의 영이고, 영생의 영인 이슬성신이 생명과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슬성신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사람도 선악과죠? (예)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생명과일이지! 그래 안 그래? 덮어놓고 대답하면 오답이 나온다고. 그게 인간이야.

생명과를 초초로 바라봐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게 생명과일 먹는 거야, 그게. 그것도 모르면서 만날 바라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생명과일을 마음으로 먹으라는 소리야. 아시겠어요? 마음으로 먹어야 영적으로 먹었다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거죠? 생명과일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도 인간의 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대동강변 출토 와당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다 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국립 박물관을 찾아가 보세요. 거기 가면, 지금부터 3000년 전 단군 할아버지가 단군 조선을 건립하실 때에, 대동강 변에다가 건설했을 때에, 대동강 변에서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 데 그 기왓장이 국립박물관에가 있을 거다." 이 사람은 박물관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알까, 모를까? 아니까 말을 했을까, 모르는데 꾸며서 말을 했을까? 아니까 말을 한 거예요. 기왓장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라 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말이 분명히 쓰여 있을 것이다. 신이 아니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오니 그거 신사훈 박사한테 가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한테 가서 번역을 해 오라고 했죠? 신사훈 박사가 이건 이스라엘 말이다, 그랬어, 안 그랬어? "도착을 했다.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가자."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초창기에 말을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구세주 조희성님

단상에서 불덩어리로 변신하는 구세주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초창기에 단에서 설교하면 이 사람의 몸이 처음에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참 예배를 보다 보면 불덩어리가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장차 빛이 나갈 것을 보여준 거야, 안 보여준 거야? 장차 빛이 나갈 것을 보여 주었어, 초창기에. 처음에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불덩어리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무서우니까 도망 나간 적도 있었죠? 불덩어리가 말을 하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그러한 기적도 다 보여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충청도 시골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가자 가자" 해서 역곡제단까지 데려온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지금 나오지 않는 모양인데 옛날에 장 전도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자 가자" 해서 역곡제단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휘하에 있는 모든 신도들도 다 따라서 왔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오늘날 이 승리제단 식구들이에요. 제발로 승리제단에 온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온 거죠? 직접 이끌어 온 거야. 그래서 모여진 것이 이 승리제단이에요.

구세주의 옥중살이를 노여워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이 옥중살이 7년 동안 하고 나와 보니까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구세주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을까? 예의가 아니에요. 구세주는 이렇게 되면 한국 버리고 가요. 한국 땅 버리고 간다고. 구세주가 아쉬운 것이 있을까? 아쉬운 것 없어. 내가 옥중에서 한국 땅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한국을 버려라 그랬어요. 한국을 버려라. 구세주를 옥중에다 집어넣는데 가만히 있는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적들이니까 버려라. 다 버려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울며불며 사정을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죠?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급일까, 계급이 있을까? 동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없는 거죠? 몸으로 말하면 반쪽 몸이야, 반쪽 몸. 반은 하나님의 신이고, 반은 인간의 몸을 쓴 하나님의 신이에요. 사정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인생을 추수하는 백보좌심판자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오늘날 사람 말을 하고 있지마는, 실은 때가 되면 다시 환원이 될까, 안 될까? 다시 환원이 되면 인간은 못 봐. 하나님이 된 사람만 봐.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못 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야. 할 수가 없어. 백보좌심판자야.

그래서 인생을 추수하러 왔다고 새 41장에 쓰여 있죠? "人生秋收(인생추수) 糟米端風驅飛(조미단풍구비) 糟飄風之人(조표풍지인) 弓乙十勝(궁을십승)"이라고 쓰여 있죠? 십승(十勝)이라는 말이 바로 정도령이다. 십승이 구세주고, 십승이 바로 생미륵불이라고 십승론에가 쓰여 있어요.

십승이 조 씨 성을 가지고 인생을 추수하러 온다고 그랬죠? 인생을 추수하러 온다는 말이 인생을 심판하러 온다는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구세주를 만나가지고 범죄 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되어요. 그때에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죄인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구세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에요. 영모님이 "너 참 애처롭다. 너 참 불쌍하다." 한 말씀이 영모님 설교에서 나오죠? 얼마나 불쌍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사람의 탈을 벗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벗기 싫어도 벗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탈을 벗게 되어 있어요. 남자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여자가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신으로, 중성체로 변해요.*

2000년 9월 10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2장 이삭의 하나님≫

(6)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판 에서

참성경

(5)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여생을 보냄 (창25:1)

(지난호에 이어서)

아브라함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신이 장자상속과 함께 아들 이삭에게 옮겨지게 되자,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처럼 음양의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140세 이후부터 큰아들 이스마엘의 집에 살면서 첩 그두라[1]를 얻어 아들 여섯을 낳았는데, 이 여섯 아들의 후손들이 북부 아라비아 종족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175세의 아브라함은 기력이 소진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스마엘에게 바란 광야 북부에 살고 있는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집에 도착한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너는 어머니 사라가 누워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너의 형 이스마엘과 더불어 나의 시체를 거두어 사라 옆에 눕게 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게 되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동쪽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이 밭에 아내 사라를 안장했었는데 이제 자신이 그 옆에 눕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 그두라: 마흔 살의 모세가 애굽에서 도주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이며 또한 중앙 아라비아의 조상입니다.

(6)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판 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39세에 결혼하여 그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자그마치 5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도 잉태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여 리브가 26살에 결혼한 지 19년 만에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창25:22).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가 뛰놀 때, '후동이가 선동이보다 복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리브가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난 아들들의 특징은 부모님의 오랜 기도 끝에 수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 육십 세 되던 해에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형을 '에서'라 하고 동생을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쌍둥이지만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아주 달랐습니다. 형 에서의 온몸에는 붉은 빛깔의 털이 나 있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살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랄수록 성격도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에서는 집에 있기보다는 활과 창을 가지고 들에 나가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가끔 남쪽 바란 광야까지 가서 큰아버지 이스마엘로부터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는 낙타 위에서 활 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얌전하고 조용한 성미의 동생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안 살림을 돌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슴고기를 즐기는 아버지 이삭은 자연히 사냥을 잘하는 아들 에서에게 정이 더 쏠리고, 이와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곁에서 집안 살림을 같이 돌보아 주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사냥하러 가는 에서와 양치는 야곱 (창25:27)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치른 지 3년째 되는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5세의 에서는 활을 메고 들에서 사냥하느라고 뛰어다니다가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큰아버지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바란 광야까지 가서 사촌 형제들과 어울려서 며칠간 유숙하면서 사냥하고 먼 길을 다녀왔기에 무척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은 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난 지금 배가 고파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네가 쑤고 있는 그 팥죽을 좀 주렴."

"형, 그런데 형님의 권리를 나한테 넘겨주면 이 팥죽을 드리겠어요?"

"뭐라고? 형님의 권리. 그게 뭐지?"

"아, 형님, 그것도 몰라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권리 말이어요."

"에서 형,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팔아요." (창25:31)

"응, 그런 것. 네가 갖고 싶다고 하면 주지. 그 대신 그 팥죽이나 빨리 줘!"

배가 고픈 형 에서는 얼떨결에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이 물려받을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넘겨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두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된 리브가는 심중으로 '맏아들 에서는 장자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후동이가 되는 야곱이 선동이 에서보다 복이 있다(창25:23)고 자신에게 계시(啓示)하신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안젤라